
빈부격차와 계급차별

I.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위기

II. 계급, 계층

III.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IV.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가난과 범죄

학습목표

1. 계급의 개념과 이론을 숙지한다.
2. 계급차별의 양상을 학습함으로써 현실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과 민감성을 증진한다.
3. 계급차별을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한다.

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위기

SNS상의 수저론



- 자료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18949618#none>

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위기

※ 수저계급론

- 영어표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에서 유래
-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에서 유래
-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으로 본인의 수저가 결정된다”라는 사회이론
- 청년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의 각종 사회문제와 맞물리면서 큰 공감을 얻음

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위기

1.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위기의 유발

-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의 부는 20:80을 넘어 1:99로 급격한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심화된 사회로 변화
→ 부의 최상류층 집중과 함께 중산층이 붕괴하고 하층민과 극빈층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부의 양극화 야기
- 부자와 빈자가 다른 삶의 방식, 상이한 문화를 형성하지만 양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님: 부유층의 문화는 사회의 지배적 문화로서 부자, 빈자 모두에게 영향; 빈곤층의 문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유층에 별다른 영향 없음

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위기

2. 가치 획일화, 사회문화다양성 저하와 사회위기 가속화

-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나는 것'만이 성공이며 최상의 가치라는 믿음이 사회 전역에 확산되고, 미디어에서 그리는 부유층의 생활이 그런 욕구를 보편화
-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욕구 특성들의 발휘가 경제 관련 쪽으로만 편중되고, 사회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가치나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욕구의 차이가 무시되고 획일화되면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크게 저하
- 부의 양극화/빈부격차의 심화로 기본적인 삶의 질도 보장받기 힘든 인구가 급증
 - 기본경비의 상승세에 비해 수입 증가세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
- 경제적으로 부유/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지배 담론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됨 → 가난이 도덕적 결함으로 전화

I.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위기

- 부를 예찬하는 담론이 급속도로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옛 성현들의 부를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메시지들이 스며들 여지가 없는 사회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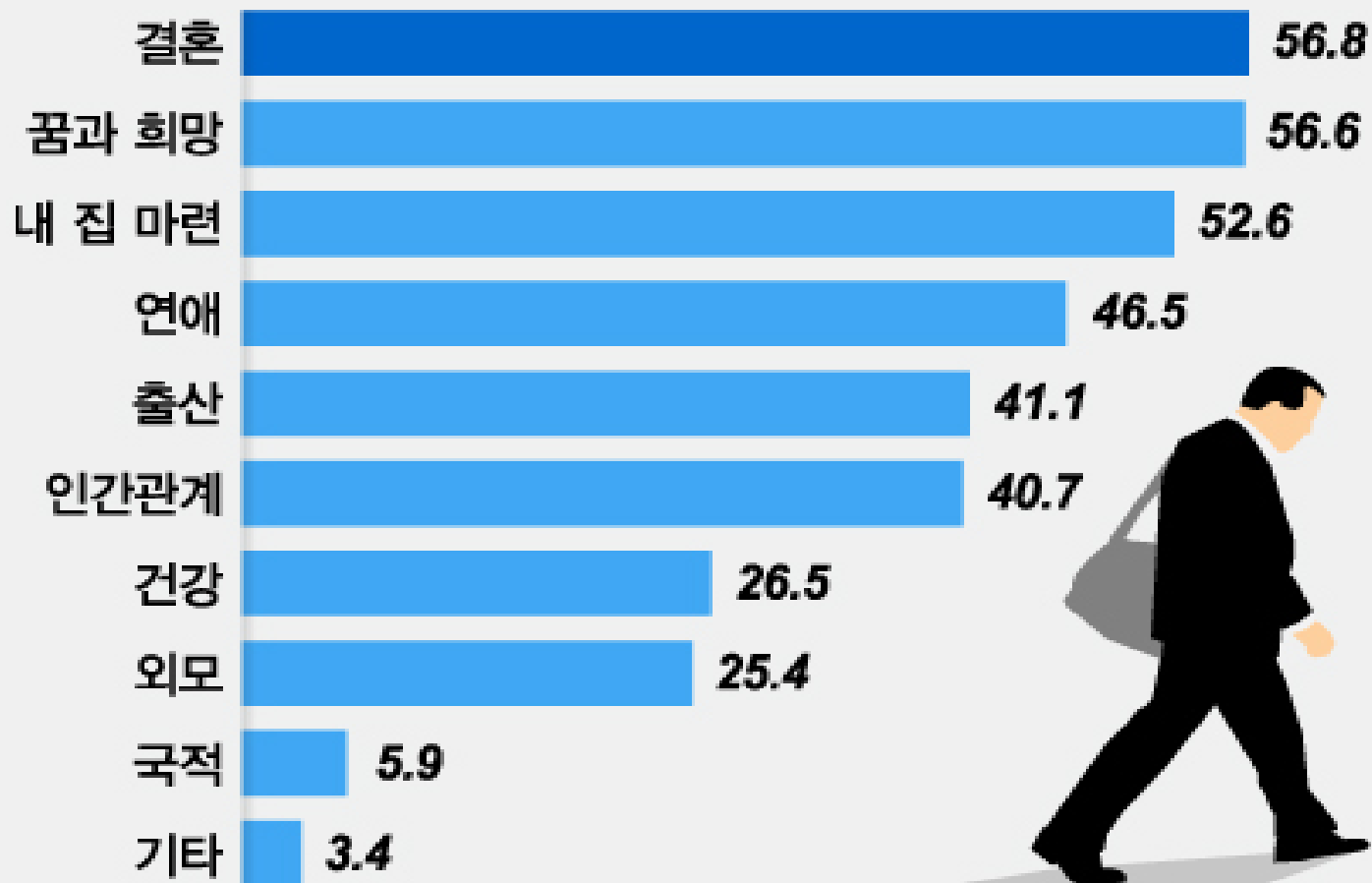
ex) 기독교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 유교의 안빈낙도, 불교의 무소유
→ 인생의 행복은 물질적 부와 무관하다는 깨달음

-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가난은 점점 더 무시와 조롱,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이것은 비하와 모멸감, 사회적 배제 등으로 연결되고, 연애/결혼/출산 등의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의 양산과 함께 인구 대다수가 자기 혐오에 빠져드는 사회위기가 가속화

20~30대 69% “나는 N포세대”

2030세대 “나는 N포세대” ...포기한 것 1위는?

복수응답 가능, 단위:%



자료:사람인

N포세대가 사라지려면...

1. 경제적 안정(33.6%)
2. 경쟁 위주의 사회분위기 변화(26.9%)
3. 국가적인 정책 지원(21.5%)

취업포털 사람인 2015년 2030 회원 1675명을 대상으로 조사

Ⅱ. 계급, 계층

1. 계급

- 경제적 이해관계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적인 사회집단들을 지칭
-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대집단들로 규정
 - 경제차원의 적대관계를 내포하는 개념이고, 생산수단(노동/토지/자본)의 소유여부가 주요 구분기준
- 자본주의 사회의 적대/불평등 관계 분석에 주로 사용

Ⅱ. 계급, 계층

2. 계층

1) 의미

- 사회 내에 존재하는 집단들 사이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
- 재산 소유관계에 기반을 둔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 인종, 종교, 지역, 학벌 등에 근거한 불평등도 포함
- 개인들은 소속 계층의 사회적 위계에 따라 보상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을 갖게 됨: 구조화된 불평등

Ⅱ. 계급, 계층

2) 특징

- 계층은 유사한 성격을 공유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특정 집단에는 특정한 사회적 랭킹이 적용되지만, 구성원들이 반드시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님
- 개인이 자기 소속계층을 바꿀 수는 있지만, 계층의 범주는 그와 무관하게 유지
- 계층별로 특별한 사회적 랭킹이 적용, 개인의 삶/경험/기회는 소속 계층의 랭킹에 크게 의존, 랭킹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
- 사회계층은 재산/직업/소득/학력/학벌/가문/생활양식 등, 그것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지표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

Ⅱ. 계급, 계층

3) 계급과 계층의 차이

- 집단들 간 불평등/서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사회 현상의 설명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
- 계급은 생산수단 소유/통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따라 분류, 계층은 재산/소득/직업/교육/생활양식 등의 수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류
- 계급은 경제적 불평등이 분류 기준, 계층은 소득/재산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해 학력/학벌/직업/생활양식 등 다원적인 불평등이 분류 기준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1.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 마르크스와 베버의 계급 개념을 종합하여 계급 이론의 지평을 확장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 경제적 자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개념을 사용해 새로운 계급 개념을 정립
- 사회적 자본: 타인과의 인적 관계 지칭
- 문화적 자본: 평판, 명성, 명예, 지식 등을 포함하는데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보고 배운 암묵지(tacit knowledge)를 포함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2. 부르디외 계급이론의 핵심개념들

- 자본(capital)/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아비투스(habitus)/장(champ /field) 등: 부르디외 계급이론 이해의 출발점

1) 자본

- 부르디외에게 있어 자본(자본축적)은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 자본 축적의 정도에 따라 상류·하류 계급 결정
- 자본을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으로 대별
- 이 중 부르디외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자본이 문화적 자본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2)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과 아비투스(habitus)

(1) 상징적 폭력

- 부르디외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 자본이 문화적 자본
- 모든 계급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서로 다른 문화자본을 축적: 계급마다 보고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
- 각각의 계급이 축적한 문화자본은 상이한 가치를 부여 받음: 지배 계급이 지닌 문화자본은 높은 가치, 피지배 계급의 문화자본은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 → 자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배계급이기 때문
- 이처럼 계급권력에 의한 문화자본의 차등적 가치부여를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이라고 함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2) 아비투스(habitus)

- 개인의 성향, 취향, 성질, 습성 등을 의미
- 아비투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여 몸에 각인되는 것
- 아비투스는 habit와 habitat의 합성어로 반복적/무의식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특정 행위가 몸에 배어서 자연스러워진 상태
- 부르디외에 따르면 개인의 옷 입는 취향, 음식 취향, 음악 취향 등은 개인적 기호가 아니라 계급적으로 결정되는 것
- 계급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개인의 몸에 각인됨으로써 행동을 매개하는 것이 바로 아비투스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3) 장(champ/field)

- 앞서 설명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들이 축적되는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
- 사회적 공간으로서 무수히 많은 장들로 구성
- 각 장은 각기 나름의 규범/규칙/가치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면서,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듦
- 각 장은 서로 간에 위계적으로 배열 → 계급권력(지배계급)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장이 위계구조의 상위에 배치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3. 부르디외 계급이론과 한국

- 한국사회는 유럽에 비해 계급 간 아비투스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음: 현재의 상이한 계급들도 두 세대만 거슬러가면 대동소이한 출신 배경 → 짧은 시간 동안 사회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음
-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상층계급의 문화적 구별짓기 움직임이 활발 → 명품소비/와인 테이스팅/해외 골프여행/미술품 수집관람/자녀의 조기 유학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한 구별짓기가 부유층에 의해 촉발

Ⅲ. 부르디외의 계급이론

- 인류학자 브라이언 모런(Brian Moeran): 전세계적 차원에서 비유럽권 사회들은 유럽의 상류계급을 동경하고 모방하는 중간계급적 성향을 나타냄; 상류계급조차 유럽의 중간계급과 유사한 행동패턴을 보여줌
- 한국의 중간계급은 주로 명품소비 등을 통해 상류층을 모방하여 자기 계급의 아비투스/문화자본을 과시하는 경향성이 높음
- 상층/중간계급 모두 하층계급에 대한 문화적 구별짓기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재생산하려는 욕망이 높음 →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여 간접적 상상으로 유럽 상류계급의 라이프 스타일에 접근하려는 경향

IV.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가난과 범죄

1. 현대 한국사회와 계급

1) 해방~1990년대 중반

- 해방 이후~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로 인식
- 경제적 불평등의 부재보다는 사회조직으로서 계급에 대한 인식이 부재
- 이런 인식 부재의 주 요인은 냉전의 영향(이데올로기)과 활발한 사회이동
- 계급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이데올로기적으로 금기시 됨
- 사회이동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1997년 IMF사태 전까지 기간에 급속한 산업화에 의한 계급의 상승이동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진행

IV.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가난과 범죄

2) 1990년대 중반~현재

- 1990년대 전후로 시작된 노동의 유연화 정책의 실시와 1997년 IMF 사태로 이전의 완전고용, 평생고용의 신화가 붕괴
- 파트타임직/임시직/계약직/조기퇴직 등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계급상승이 아닌 계급하락 현상이 일반화
- 계급상승 가능성이 급감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자기집단들의 계급적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적 노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미 봉착

IV.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가난과 범죄

2. 현 한국사회의 계급/계층구조(현황)

1) OECD기준에 따른 2012년 통계청 자료: 중위소득기준

- 빈곤층(50%)/중산층(50-150%)/고소득층(150%이상)으로 분류
-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층은 177만원 이하, 중산층은 177만원 ~532만원, 고소득층은 532만원 이상: 70% 이상이 중산층

2) 직업 및 종사상의 위치에 따른 분류

(1) 중간계급

- 대기업이나 정부조직의 중간관리자, 전문직종사자(법률가/의사/회계사 등), 미래가 보장된 사무직 종사자 등이 해당: 인구의 약 40% 차지

IV.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가난과 범죄

(2) 부유층

- 월소득 532만원 이상, 재산(20억 원 이상의 부동산), 거주지(청담/압구정/역삼/방배/서초/신사동 등 강남 거주자), 직업 및 종사상 위치(5급 이상 공무원/대기업 임원/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이 해당

(3) 하층

- 최하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실업자/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 노동자/영세사업체 노동자 등이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 1인가구 월 572,168 원, 1인 증가 시 286,084원씩 증가)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나 그 1.2배 이하($572,168 \text{원} \times 1.2 = 686,601 \text{원}$) 가구
- 201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47만명, 차상위계층 68만명으로 집계되나 실제로는 100만 명 정도가 더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

IV.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및 가난과 범죄

3. 현 한국사회의 가난과 범죄

- 가난에 의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범죄 환경은 국가/사회의 책임 문제
- 같은 범죄라도 중산층 이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훈방으로 나오는 반면 빈곤층 청소년들은 소년원행의 가능성이 높고, 이들 중 상당수는 소년원을 통해 본격적인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음
- 우범지대의 상당수가 빈곤층 주거지역, 강력범죄 일제단속기간에는 경찰의 순찰/검문이 이들 지역에 집중, 빈곤층이 죄인이 될 가능성 높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범죄 환경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확충, 취업 및 실질 임금 상승 현실화 등을 통한 빈곤층의 생존권보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

생각해 봅시다.

1. 계층과 계급의 차이는 무엇일까?
2.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어떻게 문화적 차별로 전화할까?
3. 자기계발 열풍의 이면에서 계급불평등이 작동하는 방식은 무엇일까?